교육신문

2021년 4월 5일(월)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75호(월간)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05 교육과 스승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07 교육과 공동체
08 문화탐방

학 사 일 정

4월
- 9(금) 1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 9(금) 1학기 종합시험 시행
- 12(월)~19(월) 2021학년도 후기 입학원서 접수
- 12(월)~21(수)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 20(화)~5.3(월)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 30(금) 2021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4월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5월
- 4(화)~7(금) 2021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 5(수) 개교기념일·어린이날(공휴일)
- 12(수)~6.11(금) 2021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 19(수) 부처님오신날(공휴일)
- 22(토)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초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5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육신문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정책의 비전과 평생교육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을 통합하여 2008년 평생교육 총괄 실행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대전환의 시기에 평생교육을 통한 우리 사회의 빠른 회복과 포용적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신임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전문가, 행정가, 현장전문가, 주요 기관과 단체·평생학습자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경청하여 평생학습의 굿 거버넌스를 함께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비전과 주요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평생학습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한 대안적 학위제도 운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등 방대한 영역의 평생교육 업무와 사업을 수행합니다.

| 평생교육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며, 이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학교교육으로 대변되는 형식교육의 틀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민간영역까지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초기 목표였습니다. 그동안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인격적 완성에 도달하고, 지역공동체와 일터공동체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정책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세부사업 내용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는 현재 167개 시·군·구, 421개 기관에서 사업 운영 이래 약 50만 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모 및 학생의 한국 적응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만 초·중등 어휘교재, 한국어 언어교재 등 2,449개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평생학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7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전국 175개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국가 전문자격인 평생교육사 제도를 관리하여 현재 14만여 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평생학습 이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에는 약 85만 명의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라는 이념 아래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내용을 학점 혹은 자격취득으로 환산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학점은행제 누적 등록학습자는 185만 명에 이릅니다. 검정 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학위제도로는 22,160명의 학습자가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나아가 시간·경제적 한계를 넘어 고등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K-MOOC와 매치업 사업은 4차 산업 기반 직무교육 중심으로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취득까지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의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2030-SDG4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고, 해외 주요기관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 단기연수를 추진하는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 평생교육의 선도적 사례를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생교육의 위상과 필요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가속화한 디지털 사회 전환은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해온 대안적 학력인정과 학습인정 제도, K-MOOC과 매치업은 앞으로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또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평생교육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소외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 다양한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의 영역이 더욱 다각화될 것에 대비하여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전문가의 역할과 전문성도 강조될 것입니다.

| 더 많은 국민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제반 환경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평생학습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참여자의 평균 참여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령 간, 소득 간, 학력 간 참여 격차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2018년 시작된 평생교육바우처 정책을 전 국민의 학습비 지원 정책으로 확장하는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산의 확대, 학습비 지원의 효과 검증,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도시와 협업 체제 마련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 현장의 교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교사에게 여러 도전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온라인 화상 시스템 활용에 대한 학습과 교과서 등의 학습 콘텐츠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재구조화, 그리고 온라인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 및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이기 쉬운 학습자를 적극적 학습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의 계속되는 연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평생학습자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이후의 교육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교육신문 독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1 학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모집

"교육대학원 중 우수 등급으로 선정"
"교원양성 정원 현행 유지 확정"
-2020년도 교원양성기관 평가-

입학원서 접수 4월 12일(월) 오후 1시 ~ 4월 19일(월) 오후 5시
제출서류 우편접수 4월 12일(월) 오후 1시 ~ 4월 21일(수) 오후 5시
구술시험 5월 22일(토) 오전 9시
모집전공 간호교육, 교육방법, 교육정보, 교육행정및고등교육
국어교육*, 기업교육, 도덕·윤리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컴퓨터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 * 표시는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 표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발급

문의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90-1378, 1371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

2020학년도 전기 사범대 우수 졸업자 시상식

지난 2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 운초우선교육관 사범대학장실에서 2020학년도 전기 사범대 우수 졸업자 시상식이 있었다. 정태구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김창환 사범대 행정실 차장, 수상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상이 수여되었다. 이 상은 본교 재학 중 전 과정에 걸쳐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우에게 주어진다.

이번 우수 졸업자 총장상은 사범대학 교육학과 정은서 학우가 수상했다. 정은서 학우는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입학 통지서를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렀다. 4년간 대학 생활을 하며 교수님 그리고 학우들로부터 얻은 수많은 배움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번 총장상은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세상에 이바지하는 교육학도가 되라는 격려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제21기 교육경영 AMP 입학식

지난 3월 17일(수) 오전 11시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21기 교육경영 AMP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에는 정태구 교육대학원장, 박종훈 부원장, 김한우 교육경영 AMP 교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채진 담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21기 교육경영 AMP에는 총 40명의 원우가 새로이 입학하였다.

정태구 원장은 입학식사에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변혁의 시기에 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존중은 21세기 과학과 정보 시대에도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혁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적 사고를 위해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제공한다."라며, "고려대학교 교육경영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넓고 끈끈한 인맥이 있어 이를 활용한 21기의 멋진 활동이 기대된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입학식사에 이어 김한우 교우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한우 회장은 "20기의 인상적인 활동을 본받아 21기도 가족 같은 관계를 이루고 질 좋은 교육과 스터디 모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또한 600여 명의 선배 교우님들과의 교류는 어려운 일이나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축사를 뒤이어 교직원 소개와 학교 배지 전달식이 있었고,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입학식 본행사를 끝마쳤다. 이어 학사 안내 및 원우 간 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입학식 전 과정은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이루어졌다.

한편, 제21기 교육경영 AMP는 2022년 2월까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교육계 CEO들을 대상으로 경영기법과 리더십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해 특별휴학을 시행한다. 특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신입생 또한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은 반드시 등록 후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특별휴학 신청 대상은 교육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자 또는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사람이다.

신청은 5월 31일(월)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장소는 교육대학원 행정실이다. 특별휴학원서,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 의심(격리) 및 확진 또는 비자 발급 불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3월 15일(월) 오후 4시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3월 16일(화)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된다.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이 환수처리 된다. 다만,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 장학금의 이월지급을 허용한다.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 장학금에 한하며 외부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른다.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은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장학생 자격을 취소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2/1377)로 문의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명강의상 수상자 발표

본교 교육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강의가 종료된 후 수강생들의 수강 소감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교수 12명에게 명강의상을 수여한다.

본래 학기가 시작될 때 명강의상 시상식이 진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이번에는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상패를 교부한다.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명강의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전공	과목명
강현민	체육교육전공	스포츠마케팅
고향자	교육대학원	교육전문가를위한교육상담
김홍찬	수학교육전공	미분기하학
방은정	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교수법
설근희	간호교육전공	병태생리학세미나
송완근	미술교육전공	한국화표현기법
신창호	교육사철학전공	교육학개론
오선경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교육연구방법론I
윤지영	미술교육전공	미술교육프로그램개발
임정하	유아교육전공	영유아발달특론
장성옥	간호교육전공	질적간호교육연구
최상호	수학교육전공	수학교과교육론

※ 상기 수상자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음.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1학년도 1차 교육봉사 세미나 진행

지난 3월 18일(목) 오후 3시부터 3월 19일(금) 오후 3시까지 2021학년도 1차 교육봉사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는 2021학년도 1학기에 교육봉사를 이수하고자 하는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 과정생,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9일(화)부터 2월 16일(화)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다.

본교 사범대학은 매년 4회의 교육봉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봉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봉사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교육봉사를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육봉사 시작 전에 반드시 세미나에 우선 참석하여야 한다.

세미나를 신청한 학생은 고려대학교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인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수하였다. 신청자는 블랙보드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좌측 탭의 '2021학년도 1차 교육봉사 세미나'를 클릭한 후 공지사항의 '교육봉사 운영지침'을 숙지하여야 했다. 이어 '세미나 수강' 탭을 클릭해 세미나를 시청하고 '퀴즈' 탭에서 퀴즈에 참여하였다. 퀴즈의 모든 문제를 맞히어야 세미나가 이수 처리되었으며 퀴즈를 제출한 즉시 성적을 확인하고 다시 응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수 확인' 탭에서 세미나 이수 여부를 즉각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본교 교직팀 홈페이지에서도 이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를 이수한 학생은 학생증을 지참하고 본교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507호)을 방문해 교육봉사 일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일지를 분실하였을 경우 '교직팀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교육봉사 일지 및 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봉사 이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봉사 세미나에 참석한 다음 교육봉사계획서를 교직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성북구관학멘토링' 참가자는 교육봉사계획서 제출에서 제외된다. 그 후 봉사를 수행하며 일지를 작성하고 일지 및 확인서를 교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봉사 수행 후 교육봉사 강의를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원생은 기간 내에 확인서와 일지를 제출할 것이 요망된다. 확인서의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동행프로젝트 참가 시에는 동행프로젝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 외 기관의 경우 1365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확인서만 제출할 수 있다.

교육봉사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 교직팀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직팀에 전화(02-3290-2390) 문의할 수 있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교육신문사에서는 교육대학원 · 사범대 재학생 및 교우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 원고 모집 지면은 '교육과 이슈', '교육현장노트'입니다.
  글을 보내주신 학우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분 량 : A4용지 1매
· 보 낼 곳 : edunews@korea.ac.kr
· 문의사항 : 교육신문사 02-3290-1690

2021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방안 안내

교직팀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아래 2021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 방침을 고지하였다. 이번 학기 학교현장실습은 4주 실습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 실습학교에서 기간을 4주에서 2주로 축소할 수 있다. 2주간 실습을 진행하게 될 학생은 본교의 사전교육 및 간접실습을 진행하여야지만 실습 이수가 인정된다. 학점은 직접실습 2주가 1학점, 간접실습을 1학점으로 합산하여 총 2학점으로 환산된다.

2주 실습 대상 학생이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사전교육으로 3월 중 운영되었던 학교현장실습 특강을 듣고, 2주 직접실습을 수행한 후 간접실습으로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온라인 콘텐츠를 이수하는 구성이다. 중앙교육연수원의 콘텐츠는 연수원 홈페이지의 콘텐츠 안내 누리집(https://www.neti.go.kr/index.go)에 방문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본교 교직팀에서 지정한 콘텐츠만 인정된다. 지정 콘텐츠 목록은 본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에 게재된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접실습을 마친 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강의별 이수증 2매, 성적 화면 캡쳐본 2개를 오는 6월 4일(금) 오후 5시 30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운초우선교육관 507호를 방문하거나 다음의 이메일(kulearn@korea.ac.kr)로 제출 가능하다.

4주 실습 진행자의 성적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습학교 평가점수와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종합하여 산출한다. 2주 실습 진행자는 실습학교 평가점수, 중앙교육연수원 점수,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종합하여 부여된다. 2주 실습 대상자가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습 이수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주 실습 진행자는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실습기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교직팀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교육실습 확인서는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교육실습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교직팀(02-3290-2399)으로 하면 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이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교육 뉴노멀

고인규
세종 양지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시간강사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이사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우리 삶의 많은 모습이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문화, 사회 등 우리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끌어냈으며,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교육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원격 교육'의 전면적 실시일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급속해짐에 따라 교육부는 작년 2월 긴박하게 개학 연기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후 전례 없이 3개월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대면 수업이 전면 금지되었다.

2020년 3월에는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순차적으로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생 540만여 명, 대학생 300만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 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교육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했다.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듯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교육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대면 원격 교육'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우리가 맞이한 '뉴노멀'이며 교육 혁신의 또 다른 과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육 혁신에 대한 방법론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학교 현장에서 테크놀로지 중심의 에듀테크를 혁신의 핵심으로 두자는 주장, 'Webex', 'Zoom'과 같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원격 수업 시대를 열자는 주장, 대면과 비대면 수업 내용을 각기 개발하여 수업 체제를 구성하자는 주장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해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법과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작년, 필자가 속한 한국교원대학교 연구팀은 '코로나19 이후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교육 혁신 방법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연구팀이 이런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새로운 교육 혁신의 과제를 해결할 당사자로서 예비교사를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면, 지금의 예비교사는 구축된 기반 위에 '비대면 원격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혁신의 과제를 완수해야 할 당사자로 본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교육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는 '신기술 적응'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지향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정보통신 및 기술교육과 같은 테크놀로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력, 공공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개별화 원격 교육' 및 '프로젝트 학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화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꼽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화 원격 교육은 학생 개개인에 맞춘 개별화 평가로 이어져야 하고,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담긴 포트폴리오가 평가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테크놀로지 리터러시'와 '학습 어포던스'를 교사의 새로운 역량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교사가 가진 내용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학습 자료와 교육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개별화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학생들과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습 어포던스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뤘다.

학교 교육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생활을 강조하는 교과를 중심으로 한 융합'과 '안전, 협력, 배려'의 강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교육이 실생활을 반영해야 함을 인지한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 속에서도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안전, 협력,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교과에 융합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비교사 양성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정보 소양'의 함양과 '융·복합 수업'의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보았을 때 교육과정에서 정보 소양을 높일 수 있어야 함을 강하게 인지한 것이다. 또한, 교과 간 경계가 허물어질 미래 상황에서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문제해결 수업,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실무 중심의 통합교육이 중요해질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예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서의 교육 해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교육'이다. 'Zoom', 'Google Classroom', 'Microsoft Teams'와 같이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솔루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예비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도 이와 같은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교육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는 '융·복합 교육'이다. 예비교사는 미래 시대를 융·복합 시대로 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도 융·복합 교육이 계속해서 강조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는 안전, 협력, 배려, 다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 교육'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도 사회적 가치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비교사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교육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예비교사가 받는 사회적 요구는 이전 시대 예비교사가 받았던 요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한 것이다. 새로운 교육 뉴노멀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가 지금의 예비교사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예비교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어야 하며 융·복합 교육 역시 그리 간단하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대척점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까다롭고 다양한 소양을 요구한다. 하지만 필자는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 필자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원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만나온 예비교사들은 하나같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필자는 예비교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우리 교육 앞에 놓인 과제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 우리의 예비교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과 소양을 갖춘 인재이다.

'코로나19 이후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를 통해 필자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예비교사가 인식한 것은 예비교사 앞에 놓인 과제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직면한 예비교사들이 '공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듯 그들의 방식으로 예비교사들의 도전을 응원하고자 한다. 앞으로 예비교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쉽지 않지만, 연구자로서 그들의 문제와 도전에 공감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싶다. 길을 돌아갈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한가운데로 되돌아가지 말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 우리 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K-방역의 시대가 지나고 K-교육의 위력을 보여 줄 때가 된 것 같다. 모든 예비교사를 마음속 깊이 응원한다.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는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49만 명),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이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124만 명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면제됨으로써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고 이로써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의 축적은 곧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간 고교 학비 지원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음으로써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또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며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교육부,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올해부터 총 120억 원 규모의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재정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의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대학은 신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발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술에 특화된 인재의 발굴 및 산업 현장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지난 3월 5일(금) 발표한 것이다.

사업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교육부는 신산업 분야의 다양성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서 4~5개교 내외, 지방에서 7~8개교 내외의 총 1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총 12개의 전문대학에 각 학교당 1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각 전문대학은 학과 특성, 지역 특화 신산업, 지역 산업체의 특성 등을 분석해 1개의 특화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에 맞는 신산업분야 학과(전공)의 인재상을 설정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이를 평가해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을 신청하는 대학은 특화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개편하고 고도화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의 현장성 또한 제고하여야 한다.

신산업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법을 개발·적용하여야 하고 산업 변화를 고려한 교원 역량강화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학사운영 유연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특화분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화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최신 실험실습장비, 각종 설비 등 기초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전문대의 대내외적 여건이 지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문대가 신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해외 한국어교육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친한(親韓)·지한(知韓) 인재를 양성하는 첫걸음이며, 국가 간 교육·문화 협력의 핵심적 기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작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높은 수요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도 예년 대비 약 2배인 23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년 신규 채택 국가로는 과테말라, 덴마크, 라트비아, 르완다, 스리랑카, 아프간, 체코, 터키, 라오스 총 9개국으로 전체 39개국의 1,699개교에서 약 16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3억 인구의 인도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였고, 러시아에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승인하였으며, 베트남은 2016년에 시범교육을 시작하여 2020년 3월에 제2외국어로 승인한 데 이어 올해 2월 초에는 제1외국어로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 등 6개 선진국의 언어와 대등하게 교육할 수 있고 대학입학시험의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국의 현지 한국어교원 연수를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교원 양성과정은 현지 유수대학 내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교육당국은 늘어나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법」에 시험 근거를 마련하고,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IBT) 전환, 말하기 평가와 문제은행 도입 등 시험 개선을 시작하였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45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기를 목표하여 2021년에는 43개국 1,800개교에 개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요르단, 벨기에, 에콰도르 등 3개국과 라오스·캄보디아 등 시범교육 국가를 포함하여 현지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나아가, 국제 통용성을 갖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재를 개발하여 온라인 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학문

우리 집에서도 창의적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

김경민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 연구교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언제부턴가 익숙하게 들려오던 말이자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었다. '과연 지금부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일까? 늦지 않았을까?'와 같은 의문을 품으며 창의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통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지 나에게 와 닿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주관한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한 학기의 수업만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야 창의성도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에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며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환경이 창의성 발달 및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여기서 창의적 환경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산출물로 완성하기까지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환경 요인으로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환경적 측면 중에서도 특히 가정환경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차적 환경이며 다방면에 걸친 인간의 발달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창의적 가정환경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창의적 가정환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창의적 가정환경 수준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창의적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창의성 이론과 창의적 환경 및 가정환경에 관한 선행연구 그리고 일반인들의 생각을 토대로 창의적 가정환경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구상하여 최종적으로는 창의적 가정환경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창의적 가정환경에 관한 개념적 틀은 가정환경 자극검사에 근거하였다. 가정환경 자극검사는 아동이 가정환경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자극 및 지원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도구다. 아동 및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제시하는 가정환경 내 활동, 상황, 사건, 물체 등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환경의 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정환경의 범위를 물리적 공간, 도구, 롤 모델, 경험, 수용과 격려, 발달 촉진을 위한 인지적 자극, 활동 규제의 일곱 가지 범주로 제한한 뒤, 해당 범주 안에 기존의 창의성 및 창의적 가정환경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창의적 가정환경의 특성들도 통합하였다. 그 결과 창의적 가정환경은 창의적 활동 공간 및 시간, 창의적 활동 도구, 창의적 롤 모델, 다양한 경험, 존중 및 수용, 다양한 사고의 격려 그리고 과도한 억압 부재의 일곱 가지 요인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창의적 가정환경에 관한 개념적 틀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직접 해당 요인별 측정 문항을 구성한 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집단(524명)을 활용하여 창의적 가정환경 척도의 최종문항을 선정하였고, 두 번째 집단(221명)을 활용하여 첫 번째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문항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집단(71명)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만든 창의적 가정환경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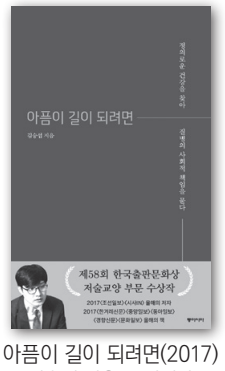
그 결과, 최종적으로 창의적 가정환경 척도는 총 5요인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명칭은 해당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문항의 저변에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공통적인 내용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정하였다. 첫 번째 요인(8문항)은 창의성 발달을 위해 가정 내에서 체험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게 하는 등 여러 경험을 얻도록 하는 공통점이 있기에 '다양한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10문항)은 부모가 아동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거나 부모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부모의 압력'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5문항)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가족 구성원이 롤 모델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에 '창의적 롤 모델'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9문항)은 아동이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도구 등을 제공해주는 것을 포함해 '창의적 공간 및 도구'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7문항)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격려해 주는 내용이기에 '존중 및 격려'로 명명하였다. 창의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 및 전체 점수는 해당 문항들의 평균으로 산출할 수 있다. 창의적 공간 및 도구, 창의적 롤 모델, 다양한 경험과 존중 및 격려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해당 하위요인의 특성이 많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압력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압력이 없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창의적 가정환경 측정 도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측정 도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가정환경을 평가하는 척도와 구분되는 창의적 가정환경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좋다고 평가되는 가정환경에는 아동이 다방면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반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의적 가정환경 측정 도구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창의적 가정환경에는 아동이 기존에 해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제시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창의적 가정환경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잠재력을 일깨워 창의성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반복함으로써 창의성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측정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서양에서 개발된 가정환경 혹은 창의적 환경 관련 측정 도구에서는 과도한 압력 혹은 행동 억압 등의 이름으로 음주, 흡연 및 약물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를 강요받는 것이 창의성 발달을 저해하는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창의적 가정환경의 특성에 대한 생각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가치관과 문화 특성을 고려할 수 있었고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도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창의적 가정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개념적 틀에 근거하여 창의적 가정환경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기에, 창의성 발달을 지원하는 가정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는 향후 가정에서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가정환경 관련 연구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교육신문 문화평

질병의 사회적 원인, 그리고 과학의 역할에 대한 질문



아픔이 길이 되려면(2017)
김승섭 지음, 동아시아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2017년 한국출판문화상 저술상을 비롯, 각 언론사의 '올해의 책' 선정 등 총 14개의 출판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은 책이다. 저자인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사회역학 전공자로,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의 개념과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는 한편 그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아픔이 길이 되게' 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질병의 사회적 의미를 반추해 볼 수밖에 없는 요즈음, 음미할 가치가 소진되지 않은 현재적 질문이다.

사회역학(Social Epidemiology)은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의학이 질병의 신체적 기제를 탐구한다면, 사회역학은 질병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의학은 스트레스와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이 한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사회역학은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특정 집단을 더욱 스트레스와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지 인구집단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다.

전술했듯 사회역학은 생경하게 느껴지는 개념인데, 실제로 독립된 학문, 혹은 전공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의사 제프리 로즈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역학은 '원인의 원인'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학(Epidemiology)과 구별된다. 낸시 크리거 교수는 이를 '원인의 그물망(web of causation)'보다 그물망을 생산하는 '거미'를 찾는 작업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나의 질병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함을 가리키는 '원인의 그물망'은 이미 1960년대부터 역학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그 그물망의 범주는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의, 그리고 고정된 것으로 설정되었다. 반면 사회역학은 원인의 그물망이 역사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토대 위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유동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그렇기에 그물망이 아니라 거미를 추적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역사와 권력 및 정치를 문제 삼으며 질병의 사회·정치적 원인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역학의 관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회역학의 대상은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그것을 규율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이는 저자가 강조하듯 그물망의 직조 원리 중 하나인 '차별'을 밝혀내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분자생물학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밝혀내는 의학, 또는 역학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치료 기술의 혜택을 분배하는 사회적 관계가 불평등하다면 진정한 치료나 예방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건강 연구,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소수자 건강연구, 세월호 사건 생존자 및 가족 건강 실태 연구 등 저자가 활발히 수행해 온 연구의 주제 자체가 사회역학의 성격과 역할을 잘 설명해 준다.

한편 오래된 신화 중 하나인, '객관성과 중립성이 과학의 제1원리'라는 전제에 비추어 본다면 사회역학의 과학성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저자 역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기초한 사고를 과학적 합리성의 첫 번째 요소로 꼽는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 첫째, 지식의 생산 과정에 대한 의심이다. 암과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 흡연이 아니라 스트레스라고 부각시키려는 담배 회사의 지원을 받고 수행된 한스 셀리에 박사(노벨 생리학상 후보에 10여 차례 오른 바 있는)의 연구가 잘 보여주듯, 연구 활동 자체가 그물망으로부터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합리성의 첫 번째 전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학은 사회적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근거의 불충분함을 변명으로 삼는 태도에 대한 경계이다. 1978년 미국노동안전청은 작업장 내 벤젠의 노출기준을 1ppm으로 규제했으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석유 기업 관련 연구소의 소송에 직면해 기준을 10ppm으로 완화한다. 그러나 이후 연구가 축적되어 10ppm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1987년 다시 1ppm으로 강화한다. 벤젠 노출기준의 조정 과정은 일견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제가 지연되는 10년 동안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가 최대 490명이라는 사실은, 이 합리성을 증명하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환기한다.

사회역학은 과학이 합리성을 포기하더라도 사회에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개선과 합리적 연구가 분리된 활동이 아님을 주장하는 학문적 경향이다. 저자가 인용한 과학철학자 노이라트의 비유처럼, 사회역학 연구자는 부두에서 배를 재조립하는 사람보다 바다 위에서 당장 배를 뜯어 고쳐야 하는 뱃사람에 가깝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떠나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그리고 교육현실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비유이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과 스승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김창섭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대구대남초등학교 김창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주제 중심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 내고 계신 김창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창섭
대구대남초등학교 교사

|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대남초등학교 교사 김창섭입니다. 저는 교과서 없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루하고 따분한 공간이 아닌,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중입니다. 학생들이 기대하고 좋아할 만한 활동을 실천하다 보니 이러한 활동들을 교과 수업과 연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배운 프로젝트 학습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매개로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생활이 매우 즐거워, 교사로 오래오래 지내며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역량이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3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곧 미래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이 자신의 역량이 되었을 때 비로소 빛나는 능력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능력은 곧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3대 교육인 ‘소프트웨어’, ‘메이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활동거리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배우고 익혀서 안내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프로젝트 학습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지난 2019년 9월 상상제작소를 구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상상제작소를 구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곳에서 주로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상제작소는 메이커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에 마련한 공간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줄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 교육청 지원 예산을 신청하였고, 학교 내 유휴 교실에 ‘상상놀이터’와 ‘상상공작소’라는 2개의 상상제작소를 구축하였습니다. 3D 프린터의 발달이 메이커 교육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메이커 교육은 단순히 3D 프린터 활용 교육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모든 창작 활동이 곧 메이커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제작소에서 가장 먼저 실천한 메이커 교육은 상상제작소 벽화 그리기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상상으로 교실을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상상제작소가 완전히 구축된 이후에는 상상한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메이커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활동을 상상제작소에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교과서 없이 수업하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는 어떠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이란 교과 간 융합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이상의 주제(목표)를 정한 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학습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성취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의 일반적인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성취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모두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보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미디어 교육 연구로 제27회 교육방송연구대회 전국 1등급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구하신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온라인 수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를 실제 온라인 수업에 어떻게 접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27회 교육방송연구대회 클립 영상 제작 부분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2019년에 출품했던 해당 영상물을 2020학년도 온라인 콘텐츠 학습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순차, 반복, 선택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영화적 스토리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로 학습한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고,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편, 현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습능력 저하, 지역 및 계층 간의 학력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일선 교사들은 칸아카데미, 에듀랩 등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습 방법이 제시되어도 결국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학습을 실천하지 않으면 학습 능력은 향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에는 블렌디드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12개의 블렌디드 프로젝트 학습을 마련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선생님의 교육관은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화 ‘인셉션’을 보셨나요?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마음 깊은 곳에 영향을 줌으로써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영화 ‘인셉션’처럼 학생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그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처럼 학생들의 꿈속에 들어가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다양한 경험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하는데, 이 때 교량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한 학생들이 저를 기억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했던 많은 경험들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 교육이 생긴 이래 우리 교육 현장은 참으로 오랫동안 변화 없는 모습으로 학생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좁은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지식을 전달하는 행동주의적 교육은 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수월성과 경쟁적 평가 제도를 핑계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교육자가 되실 여러분은 새로운 교사로서 교단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학생들의 삶을 공유하는 교사야말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사가 아닐까 합니다. 훌륭한 예비 선생님들께 교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교육과 세계

홍콩 민주화 시위와 시민교육

곽한영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최근 우리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교육청 단위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들도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과연 시민성이 교육을 통해 가르쳐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교육을 통해 시민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더 나아가 실제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홍콩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의 과정에서 고등학교 정규 교과 중 하나인 'Liberal Studies'가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친중파 인사들은 이 과목의 내용과 교사들의 선동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시위로 내몰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응하여 민주파 인사들은 교육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반대하며 맞섰다. 이 논쟁은 이후 홍콩민주화시위의 과정과 궤를 같이 했고 2019년 벌어진 범죄인 인도협약 문제를 둘러싼 대규모 시위 사태에서도 해당 과목의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특정한 과목이 사회변혁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로, 달리 보자면 매우 성공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Liberal Studies는 어쩌다가 이런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Liberal Studies는 1978년 인권운동가인 베넷 목사가 경쟁 위주, 지식 중심의 홍콩 교육을 비판하고 학생을 자유롭게 만드는 교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처음 제안되었다. 이 주장은 별다른 사회적 반향이 없었으나 1984년 중영협정을 통해 1997년 홍콩반환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현재 상황과 홍콩의 이슈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과목으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였고 '명예로운 철수'를 계획하던 영국의 입장에서 홍콩과 중국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철수 전 홍콩에 확실하게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어두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래서 이전까지 탈정치화 교육을 모토로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교육과정에서 배제했던 기존의 자세를 180도 바꾸어 1992년 전격적으로 Liberal Studies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작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입시부담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과목의 도입을 반대했고, 더하여 지필고사를 통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인 대학들의 외면으로 인해 선택과목으로 축소되어 전체 고등학교의 10%만 채택하고 수험생의 6.5%만 응시하는 사실상 실패한 과목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Liberal Studies를 핵심과목으로 끌어올린 것은 영국이 아닌 중국 정부의 선택이었다. 1997년 홍콩 반환과 함께 교육정책의 주도권은 대학과 개별 학교에서 교육당국으로 넘어왔다. 담당 관료들은 같은 시기 주변국인 싱가폴, 필리핀 등에서 학생 중심, 토론 중심, 통섭적 교육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 Liberal Studies를 통해 이를 구현하려 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학생 개인 탐구과제'(Independent Enquiry Study, IES)가 추가되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 내용에 중국의 눈부신 발전 과정을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애국심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Liberal Studies는 4대 핵심교과이자 입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홍콩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민성을 함양하는 수업의 내용 및 방식과, 체제의 정당성 및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애국심 교육은 일정부분 상호모순되는 지점을 지닌, 함께 달성할 수 없는 교육 목표들이었다. 2009년 Liberal Studies의 전면 도입 이래 수 년 간의 시행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깨달은 홍콩 정부는 2010년 기존의 '도덕과 시민교육'(Moral and Civic Education, MCE)을 '도덕과 민족교육'(Moral and National Education, MNE)으로 대체하고 2012년부터 초등학교에, 2013년부터 중등학교에 도입하기로 한다. MNE는 '민족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공식적인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중국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국의 MNE 과목 도입 시도는 홍콩 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왔다.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 따라서 Liberal Studies 과목을 통해 이 문제를 토론한 학생들이 많았고 그 결과 중등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MNE 반대 시위가 시작되어 2011년부터 약 18개월 간 시위, 행진, 파업으로 이어졌다. 홍콩 교육당국이 새로이 도입한 IES 덕분에 학생들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외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자는 날로 늘어만 갔고 결국 2012년 MNE 도입은 공식 철회되었다. 이 사건은 홍콩 역사상 학생들이 주도한 정치적 시위를 통해 정부 정책이 철회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시위에 앞장섰던 중등학생들은 정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는 또한 홍콩 행정당국과 친중파 인사들이 Liberal Studies를 위험한 과목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사건이기도 하다.

2012년 시위의 주역들에 의한 민주화 요구는 결국 2년 후 우산혁명과 Occupy Central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우산혁명 시위를 주도했던 조슈아 웡 등이 이끄는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학민사조'(學民思潮)가 바로 2년 전 MNE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만든 조직이었다. 79일 간 이어진 시위는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렸지만 홍콩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고 특히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었다. 시위가 진행되던 중 3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2014년 홍콩인구조사 자료 상 29세 이하 비율은 45.3%인 반면, 시위 참여 인원 비율은 85.3%로 인구 비율의 1.8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위에 대한 지지 비율도 15~24세는 62.1%, 25~39세는 46.2%, 40~59세는 28.4%, 60세 이상은 29.6%로 나이가 어릴수록 지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콩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젊은 층의 주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 태도는 정부 당국과 친중파 인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민의식을 이토록 각성시킨 특정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Liberal Studies 과목과 그 과목을 가르친 사회교사들이 큰 영향을 준 요소로 지목된 것이다.

결국 2019년 범죄인 인도협약 문제를 둘러싸고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주화시위가 장기간 이어지자 홍콩 정부는 Liberal Studies 과목을 손보기로 한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시위가 잦아든 2020년 초, 홍콩 정부는 교과서 검열기준을 발표하면서 권력분립 내용을 삭제하고 시민불복종 내용 앞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같은 해 11월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2021년 교육과정 개편을 발표하면서 Liberal Studies의 변경사항을 예고했다. 수업시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성적 평가 없이 pass/fail로 대체하며, IES 활동은 완전히 삭제되는 대신 중국 본토 견학이 추가되었다. 또한, 수업 내용의 측면에서 시사토론은 배제하고 애국심 교육, 준법, 조국의 발전상을 강조하기로 했으며 과목명도 변경하기로 했다. 사실상 기존 Liberal Studies 과목의 폐지에 가까운 수준의 변경이다.

시민교육의 방향성은 크게 보자면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교육과 비판적 사고를 통한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홍콩의 시민교육은 전자인 애국심 교육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장 노트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나길

배시연
체육교육전공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학교 현장실습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신청 당일이 되었을 때 손을 바르르 떨며 실습 신청을 했다. 학교가 배정된 후에는 학생들을 마주할 설렘과 동시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했다. 걱정도 잠시, 2020년 2월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며 실습 날짜 또한 점점 미뤄졌다. 결국 4월로 예정돼 있던 실습은 6월로 연기되었고 4주간의 실습이 2주로 축소되었다.

기대해 온 벚꽃 흩날리는 4월의 체육 대회를 못 하게 되어 아쉬움이 컸지만, 실습이 취소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발을 디뎠다. 설레는 마음에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어 학교를 천천히 둘러보고는 발열 체크를 한 뒤 교실에 들어갔다. 다른 실습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마스크 너머로 가벼운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모든 실습생이 도착한 뒤 실습 담당 선생님께서 2주간의 실습 생활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다.

나는 중학교 2학년 총 10반 중 7반에서부터 10반까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담당 선생님께서 학년별로 번갈아 가며 등교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은 일주일에 이틀만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 시연을 진행하지 못해 아쉽게 되었다며, 최대한 많은 수업에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등교를 하는 날, 몇몇 교생 선생님들과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마스크를 쓴 채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첫 등교에 신이 난 모습이었다. 등교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와 다시 한 명 한 명 발열 체크를 하고, 1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했다. 수업 전후에는 다시 한 번 소독을 함으로써 꼼꼼하게 위생 관리를 하였다.

1교시가 시작되고, 교생 선생님으로서 처음 자기소개를 했다. 학생들은 발열 체크를 해주던 선생님이 교단 앞에 서자 조금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려서 몇 번이나 연습하고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긴장한 탓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없어 민망하기도 했다. 처음엔 어색해했던 학생들이 한 교시, 한 교시가 지날수록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배고픈 아기 새들처럼 재잘거렸다.

점심시간에도 선생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식사 지도를 도왔는데 아이들이 "우리 반 선생님!" 하면서 인사를 건넸다. 잠깐 같이 있었을 뿐인데도 금방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며 귀여우면서도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했다. 이렇게나 밝고 기운이 넘치는 아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제약 속에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웠다.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등교한 채 답답한 마스크 속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끼리 얼굴도 볼 수 없이 대화 또한 최소한으로 해야 했다. 밥을 먹을 때도 서로를 등지고 칸막이 속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풍경이란 점에 마음이 아팠다.

등교 첫날 마지막 시간에는 반장 선거를 했다. 바를 정(正)자로 표를 세던 우리 때의 반장 선거와는 달리 카카오톡 익명 투표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의 아이들이 신기하면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크게 실감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 금방 지나고, 아이들은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아쉬워했다.

남은 실습 기간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수업을 만들었다. 학습 지도안을 실제로 짜보고 수업을 구상하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영상을 준비하였다. 비대면 체육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팀 활동보다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개인 활동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아이들이 평소 체육 시간에 해보지 못했을 색다른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동화 탭댄스 수업을 주된 활동으로 계획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PPT를 만들고 예시 영상을 촬영하였다.

처음이자 마지막 교생 실습은 아쉽게 마무리했지만, 예비교사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교단에 서게 될 날을 기약하며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2주간 함께했던 교생 선생님들과의 시간을 추억으로 남기고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나길 기대해 본다.

학교현장 탐방

'산업인문IT융합과정'으로 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신명여자고등학교

김동수
신명여자고등학교 교사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을 넓히고 있는 산업인문IT융합과정은 앞으로의 입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신명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부터 신명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학 교사 김동수입니다. 2019년부터 교육과정 부장으로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및 2개의 교과특성화(중점)학교를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여자고등학교는 1973년 3월 3일에 개교하여 올해까지 44회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 신명여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명여자고등학교는 가천길재단 회장이신 이길녀 박사께서 '박애', '봉사', '애국' 정신을 설립이념으로 삼아 창학한 학교입니다. '슬기롭게, 아름답게, 성실하게'라는 교훈 아래 '학생 중심의 학교', '모두가 꿈과 끼를 맘껏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개성과 소질을 갖고 있는 귀중한 존재인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글로벌 감각과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한편,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2020학년도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학교 지정과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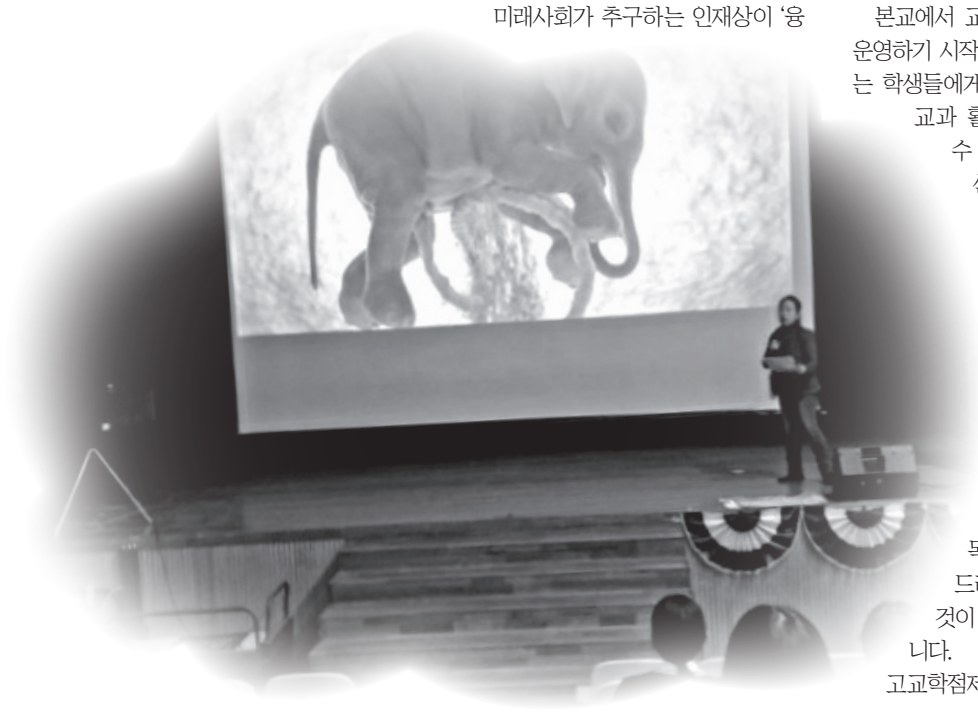
| 현재 신명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인문IT융합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융합형 인재'라는 생각에 공학(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융합하여 산업인문융합중점과정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1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은 물론 다양한 체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제공하여왔습니다.

2019년에 이르러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인문융합중점과정은 자유 선택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급형'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활동보다는,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과,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미래사회에 강조되는 기본역량이 IT역량이라는 판단 하에 2020학년도에는 기존 '산업인문융합중점과정'이었던 명칭을 '산업인문IT융합과정'으로 변경·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T역량과 공학(자연과학) 소양 또는 IT역량과 인문학 소양을 고루 갖춘 인재를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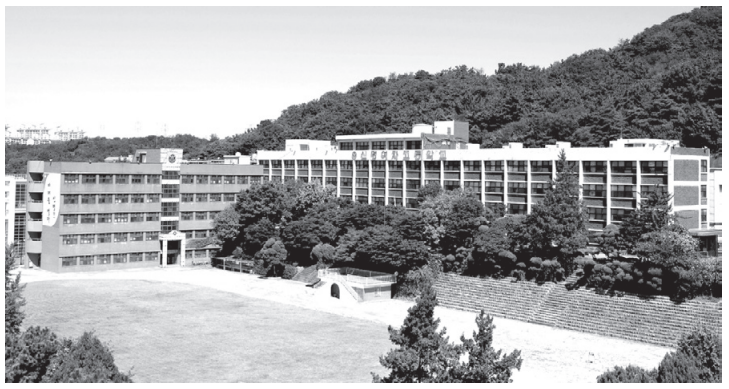
한편, 디플로마 인증기준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교과,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학생들은 졸업 시에 디플로마 인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물론, 디플로마를 받지 않더라도 관련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인문IT융합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교에서 교과특성화(중점)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산업인문IT융합과정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IT관련 과목의 개설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설하기 망설였던 전문 교과까지도 진로 과목으로 개설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가 과목 선택만으로도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학 입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로 과목의 확대로 인한 등급 표시 과목 축소는 대학의 평가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학에서 전공별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을 넓히고 있는 산업인문IT융합과정은 앞으로의 입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체험 활동의 개별화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인문IT융합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관련 과목을 선정하여 개설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전문교과들은 특성화 학교에서 지도하는 과목들인데 일반고에서 지도가 가능할까?' 하는 우려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개설하는 과목들이다보니 과목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학교 내에는 관련 과목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가 없어 타 학교 자료들을 찾아보고 개설 과목들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년도마다 관련 교과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문교사 교체 등의 문제로 인해 지도교사 간의 긴밀한 협조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 산업인문IT융합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 및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부가 풍성해지는 교육 활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산업인문IT융합과정이 충족시켜주다 보니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과정이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교 밖 활동이 제한을 받아 모든 활동을 학교 내에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았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진행한 독서토론 학교에도 학생들은 성실하게 참여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활동과 더 내실 있는 활동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육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수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이전의 고등학교 모습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과목을 정하여 수강신청한 뒤,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출석만 하면 졸업이 되는 기존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 또한 담당 과목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고민하고 학생들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에 이런 세심한 교육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10년 뒤에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블렌디드 수업은 과연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교사는 변화를 이끌어 가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교육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는 귀찮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동시에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범대생과 교육대학원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문화 탐방

도심 속 시간 여행, 〈돈의문 박물관 마을〉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근현대 100년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소개합니다. 새문안 동네의 역사와 감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기억의 보관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명칭에서 드러나듯 박물관이 하나의 '마을'처럼 조성되어 있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다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돈의문박물관마을 DONUIMUN MUSEUM VILLEAGE

〈돈의문 박물관 마을〉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14-3
- 관람시간: 화~일 오전 10시~오후 7시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739-6994~5

서대문구 또는 종로구 일대를 가본 사람들이라면 '새문안길'이라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문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의문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돈의문은 본래 서대문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돈의문은 1396년에 처음 세워졌으나 1413년 경복궁의 지맥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 이후 1422년, 현재의 정동 사거리에 새롭게 조성되었고 이때부터 돈의문은 '새문(新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돈의문의 안쪽 동네를 가리켜 '새문안 동네'라고 부르게 되었다. '새문안'이라는 명칭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새문안 동네는 2003년 인근 지역인 종로구 교남동 일대와 더불어 돈의문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면 철거 후 신축이라는 기존 재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작은 마을 그 자체를 하나의 박물관 마을로 남기게 되었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돈의문 박물관 마을'인 것이다. 한양도성 서쪽 성문 첫 동네의 삶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문화자산이자 문화의 장(場)이라고 할 만하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크게 마을 전시관, 체험 교육관, 마을 창작소, 기타 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문화 탐방에서는 가장 볼거리가 다채로운 마을 전시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돈의문 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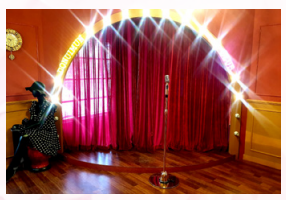
돈의문 역사관은 돈의문 일대의 시대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새문안 동네의 도시 재생과 삶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전시 공간이다. 돈의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마을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 가장 먼저 관람하는 것이 좋다.

1901년 경인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자 외국인들은 기차로 서대문 정거장까지 이동하여 돈의문 내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람과 외국산 화물이 돈의문 주변으로 모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위상 또한 한층 높아졌다. 돈의문 인근은 어느새 이국적인 풍모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돈의문의 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서대문 정거장으로 인해 돈의문 주변의 교통량이 폭증하자 일제는 1915년 돈의문을 철거한다. 서울 성곽을 이루는 사대문(四大門)인 동대문(흥인지문), 서대문(돈의문), 남대문(숭례문), 북대문(숙정문) 가운데 유일하게 그 형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돈의문은 '터'로만 남게 되었다.

스코필드 기념관

스코필드 박사는 캐나다 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한국에 왔다. 1919년 3.1운동 장면을 사진에 담아 이를 해외에 알려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화성 제암리, 수촌리 마을에서 자행된 학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서로 작성함으로써 일본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국제 사회에 폭로하기도 하였다. 스코필드 박사는 젊은이들에게 헌신과 의로움, 정직함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3.1운동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 경지를 비롯한 한국인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교육하였다. 이러한 스코필드 박사의 모습에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돈의문 구락부



구락부(俱樂部)는 클럽(Club)을 한자로 음역한 것으로 근대 사교모임을 의미한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였던 외국인들과 개화파 인사 등이 이곳에서 파티, 스포츠, 문화교류 등을 전개해 나갔다. 돈의문 구락부는 당시 사교장의 모습을 재현함은 물론, 프랑스인 부래상과 미국인 테일러 등 당시 마을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

부래상은 나무 시장을 벌이는 사람이었다. 나무 시장은 현재의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땔감이 쌀 못지않게 중요했던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나무 시장은 꽤나 요긴한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무 장수들은 부래상의 눈에 띄게 되면 그 짐을 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부래상 그는 나무 장수의 대부분이 고양(高陽)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고양 부씨(富氏)'라며 나무 장수들에게 인사를 청하고는 하였는데, 이때 꼭 보온병에 든 가배(커피)를 제공했다고 한다. 나무꾼들을 커피로 유혹했다는 재미있는 일화이다.

한편, 테일러는 'W.W 테일러 상회'에서 자동차 판매 및 수리, 영화 배급, 통신 판매 주문 등 서양의 진기한 품목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W.W 테일러 상회는 특히 자동차 광고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데, 전시관 벽면에서 당시의 자동차 광고를 확인할 수 있다. 시보레나 포드 자동차가 20세기 초에 이미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1920년 9월 21일자 매일신보도 테일러를 조선에서 최초로 자동차 영업을 창시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테일러가 당시 한국 자동차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에스더의 집

박에스더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로 한국 이름은 김점동이다. 여성이 교육을 받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선교사들이 박에스더의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이화학당에 입학할 수 있었다. 특히 영어에 뛰어났던 그녀는 보구여관에서 통역과 간호 보조 일을 맡게 된다. 보구여관이란 1887년 여성 해외 선교회로부터 여성 의사가 파견된 것을 기점으로 설립된 병원으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주는 여성의 병원'이라는 뜻을 지닌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이다. 박에스더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꺼려하고는 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박에스더는 한국 여성을 위해 의학을 공부할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박여선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미국에서 돌아온 그녀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녀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료 활동을 펼쳤다. 무상으로 진료하였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당나귀를 타고 직접 찾아갔다고 한다. 그녀는 일생 동안 환자를 위해 의료 활동을 지속하던 중 과로로 인한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34년간의 짧은 생을 마쳤다. 의인(義人)으로서의 의인(醫人)이라 할 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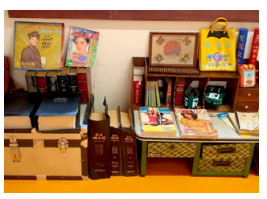
돈의문 콤퓨타 게임장/새문안 만화방

한 건물 내에 위치한 돈의문 콤퓨타 게임장과 새문안 만화방은 6080 게임과 만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1층은 게임장 2층은 만화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에 게임기와 만화책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어 부모님 세대에 유행했던 게임과 만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핸드폰 게임과 웹툰에 보다 익숙한 우리에게 이 공간은 낯선 풍경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날로그가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새문안 극장/생활사 전시관

새문안 극장은 60~80년대 영화관을 재해석한 공간이다. 1층에는 예전에 실제로 사용했던 영화 필름이 전시되고 있으며, 2층에는 실제 극장 및 매점을 구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하루 4회 그 시절 영화나 만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상영 시간표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표소부터 대기실, 매점까지 다채롭게 구현되어 있어 볼거리가 가득하다. 매점에 전시된 그 시절 간식류를 살펴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생활사 전시관은 60~80년대 가정집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이다. TV에서만 보아 오던 부뚜막, 자개장, 어린이 좌식 책상 등 당시의 여러 소품들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지면에는 다 싣지 못하였지만 이발소를 재현한 삼거리 이용원, 근대 사교장과 1980년대 결혼식장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서대문 사진관 등 볼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과거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는 탐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직접 방문하여 도심 속 시간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